

韓國 都市地理學 35年史

남 영 우*

우리나라의 지리학계는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조망해 볼 때 많은 발전이 있었다. 특히 도시지리학 분야는 8.15 광복과 더불어 성립기를 맞은 후, 정립기, 전환기, 절정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도시연구의 주제는 도시화, 도시구조, 도시체계, 도시경제 등의 영역이 중심을 이루었고, 분석방법은 정량적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도시지리학 연구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많았으며, 발표된 논문의 6할 이상은 각 대학의 紀要에 발표되었고 학술지 중에서는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가장 많았다.

주요어: 도시지리학의 동향, 도시연구, 도시지리학 35년사, 도시재구조화.

1. 序 論

우리나라에서 도시지리학이 취락지리학으로부터 분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며(강대현, 1976), 1960년대 후반부터는 각 대학의 지리학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에 도시지리학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대한지리학회가 창립된 1945년 이후부터 학회지가 창간된 1963년까지 도시지리학분야의 연구활동은 몇몇의 학자(추성구, 1958; 이한순, 1960; 1963; 이숙임, 1961; 홍경희, 1962; 1963)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한 편이나 다름없었다(박영한, 1983).

도시지리학분야의 연구활동이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대한지리학회지가 창간되고 각 대학에 지리학 관련학과가 설치되던 1960년대 중반부터였다(이찬, 1976). 그러나 대한지리학회 창립이후 50년간 우리나라 지리학 각 분야에서 가장 큰 발전과 성과를 보인 것은 도시지리학 분야라 할 수 있다. 1963-1975년간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도시지리학 분야의 논문이 전체의 27.3%로 가장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도시지리학 반세기를 회고함에 있어

서 본 연구의 방법·형식·체제는 1973년 세계 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을 언어권별로 정리한 보고서(Schöller ed., 1973)의 요령을 참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1972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I.G.C. 도시지리학분과에 제출되어 발표된 것들을 모은 것이다. 본 연구의 형식과 내용체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1960년 이후에 간행된 논문과 단행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¹⁾

① 한국인 지리학자가 집필한 간행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사 및 석사논문이나 그에 준하는 문헌은 제외한다.

(2) 도시지리학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했거나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물이어야 한다.

① 도시연구를 중심과제로 삼은 연구

② 도시지리학 인접분야 중 지리적 관점에서 접근된 연구

③ 우리나라 도시지리학의 연구수준과 발달정도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연구

(3) 이상의 기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관점에 유념한다.²⁾

① 연구물의 출판시기 및 출판기관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② 연구대상지역 및 연구주제(영역)
- ③ 이론적 접근방법 또는 방법론상의 변화
- ④ 연구동향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거나 영향력이 큰 연구물
- ⑤ 도시지리학 분야의 학과성립 여부
- ⑥ 연구결과의 새로운 사상과 문제점

2. 韓國 都市地理學의 研究動向

전술한 바와 같이 1960년 이전의 도시지리학 연구는 이론과 방법론의 정비는 있었으나(강대현, 1976, p.24),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팔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비로서 미약하나마 그 연구성과가 점차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대한지리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도시지리학연구는 35年史를 맞은 셈이 된다. 1960년대의 한국사회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은 도시성장과 도시화에 관한 분석을 비롯하여 도시기능의 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박영한,

1983, p.73).

1970년대는 도시지리학분야가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즉 1960년대에 구미 및 일본의 도시지리학 연구동향과 이론들이 직접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의 연구동향은 중심지이론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있었고 도시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우리나라 도시지리학계의 전환기가 마련된 시기였다고 요약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도시지리학 연구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업적도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특히 도시지리학 연구물은 1984-1985년을 최고의 정점으로, 1988-1989년을 제2의 정점으로 대량 출간되어 양적으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1960-1994년)인 35년 중 전체의 54.5%에 해당하는 도시지리학 관련 논문들이 1980년대에 출간된 셈이다. 1980년대의 연구동향은 도시구조 및 도시화의 분석을 비롯하여 도시체계와 도시경제(또는 도시산업)의 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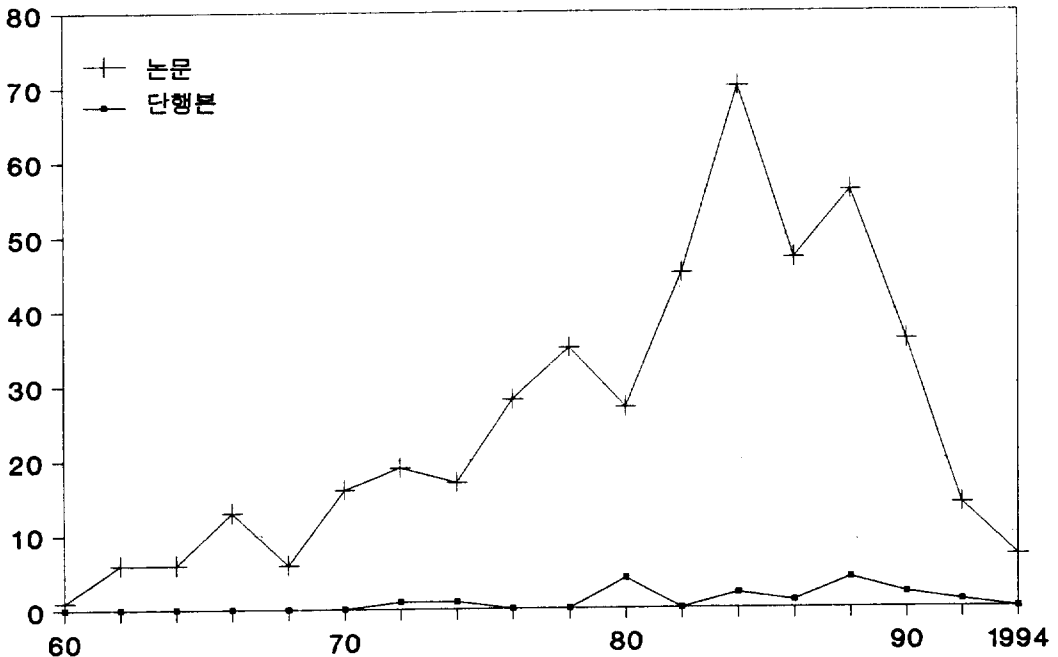


그림 1. 도시지리학 연구물의 연도별 추이(1960-1994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지리학의 열기는 일견 급격히 냉각되는 것처럼 보였다. 연구의 양적 감소는 1994년까지의 집계만으로 속단할 수 없을 뿐더러 이 기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여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전반의 연구동향을 언급한다면, 도시구조에 관한 연구가 1970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경제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은 그림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도시지리학 연구는 양적 측면에서 볼 때 도시화의 진전과 비례하여 발달해 왔다. 이러한 양상은 離村向都에 의한 도시화율의 증가에 따라 도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뿐더러 연구과제가 다양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國都市地理學 35年史에서 1960년대를 전후한 시기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체계이론에 입각한 연구물이 출간되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해방후부터 1970년까지는 몇몇의 도시지리학자들에 의해 도시연구가 주도되었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해외유학에서 귀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도시지리학도들이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그 같은 추세는 1980년대에 들어와 더욱 현저해지면서 도시지리학발달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연구의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연구의 주제 또한 폭넓게 다양화하였다. 여기에는 도시지리학 인접분야의 연구(최영준, 1989; 한주성, 1993; 박삼욱, 1994)도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도시지리학의 저변확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추세는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그림 1에 나타난 1990년 이후의 통계는 각 대학의 紀要에 게재되는 논문이 전체의 약 6할 정도를 차지함을 감안할 때³⁾ 도시지리학의 쇠퇴로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의 동향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3. 研究領域別 動向

한국도시지리학 35년사를 영역별로 회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제를 분류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960-1975년간의 도시지리학연구를 회고한 강대현(1976)은 도시권, 도시기능, 도시화, 도시발달, 도시구조, 기타 등의 9개 영역으로 나누어 논문편수를 집계한 바 있고, 1960-1980년대 초기까지의 도시지리학 연구동향을 회고한 박영한(1983)은 우리나라 도시연구의 주제를 도시구조와 도시체제로 대별한 후, 이를 도시성장 및 도시화, 도시기능, 중심지이론, 도시세력권, 도시경제, 도시분류 등으로 세분하여 都市理解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영국의 도시지리학연구를 회고한 R. Jones(1973)는 중심지연구, 신도시, 도시형태, 사무실 입지연구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문편수를 집계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S. Kiuchi and Y. Masai(1973)는 도시화, 도시사, 도시환경, 도시구조, 도시의 문화경관, 도시기능 및 도시체계, 외국도시연구, 도시지리교육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후 일본의 도시지리학 동향을 회고하였다. 이처럼 도시지리학의 영역별 구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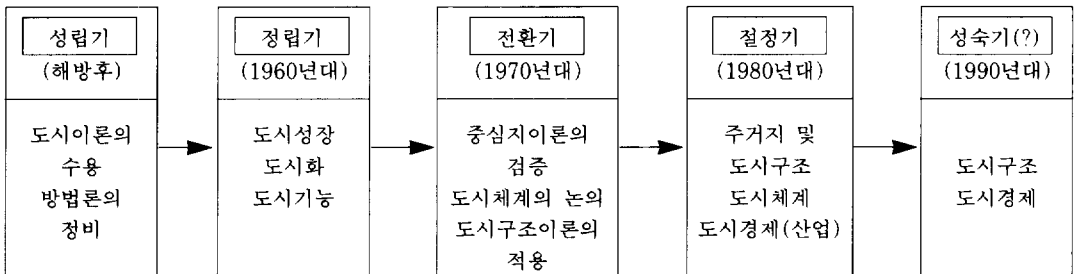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양각색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지리학 35년간의 조류에 근거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17개 영역으로 세분하여 집계해 보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기에는 쟁점이 될만한 영역이 없었을 뿐더러 연구주제가 도시인구, 도시기능, 도시화 등에 국한되었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화되어 나아갔다. 다양화의 정도는 1980년대에 들어와 더욱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개한 그림 2에서 이 시기를 절정기로 명명한 이유를 여기서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리학계에서 꾸준히 도시연구의 대상이 되어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것은 도시화, 도시구조, 도시체계, 도시경제⁴⁾, 도시인구 등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그림 3). 그러나 한국 도시지리학 분야에서 학과 성립의 징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1970년대까지의 논문 가운데 도시인구, 도시화, 도시기능에 관한 연구는 이한순과 홍경희의 것이 가장 많고, 1980년대 들어와서는 이기석, 권용우, 김인 등의 연구물이 가장 많았다. 그리

고 도시구조 및 도시체계에 관한 연구는 김원경을 비롯하여 정승일, 이기석, 한대현, 남영우, 성준용 등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한편, 단행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 들어와 이영택(1972)과 강대현(1975)을 필두로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연구에 관한 교재용 개론서와 전문서가 미진하나마 출간되었는데, 개론서로는 홍경희(1981: 1987)와 남영우(1988)를 꼽을 수 있고, 전문서로는 이기석(1980: 1981), 김인(1984), 남영우(1985), 김인·권용우(1988), 박태화(1988), 최병두·한지연(1989) 등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성준용(1990)과 최병두(1993)의 전문서가 주목을 받았고, 김인(1991)의 개론서도 출간되었다.

4. 研究地域別 動向

우리나라의 도시지리학연구가 어느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는가를 분석해 보는 일은 흥미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같은 시도는 국내의 도시지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

표 1. 도시지리학의 영역별 연구동향(1960-1994년)

영역	1960-64	1965-69	1970-74	1975-79	1980-84	1985-89	1990-94	계
도시일반	1	1	3	9	20	16	5	55
도시사			1		6	5	2	14
도시인구	3		5	9	10	5	1	33
도시기능	3	5	4	5	4	2	1	24
도시화*	3	5	14	9	28	10	3	72
도시권		1	7	6	3	3	3	23
도시정책		1	5	4	3	12	3	28
신도시		1		1		11		13
도시재개발					3		2	5
도시경제		4	3	4	9	11	11	42
도시사회				2	2	1	3	8
도시교통			2	6	3	5	16	
도시구조	2		8	5	26	12	12	65
도시체계			1	7	18	10	3	39
CBD			2	2	6		1	11
도시입지					3	2	3	8
도시형태		2				2	1	5
계	12	20	53	65	147	105	59	461

* 도시성장애 관한 연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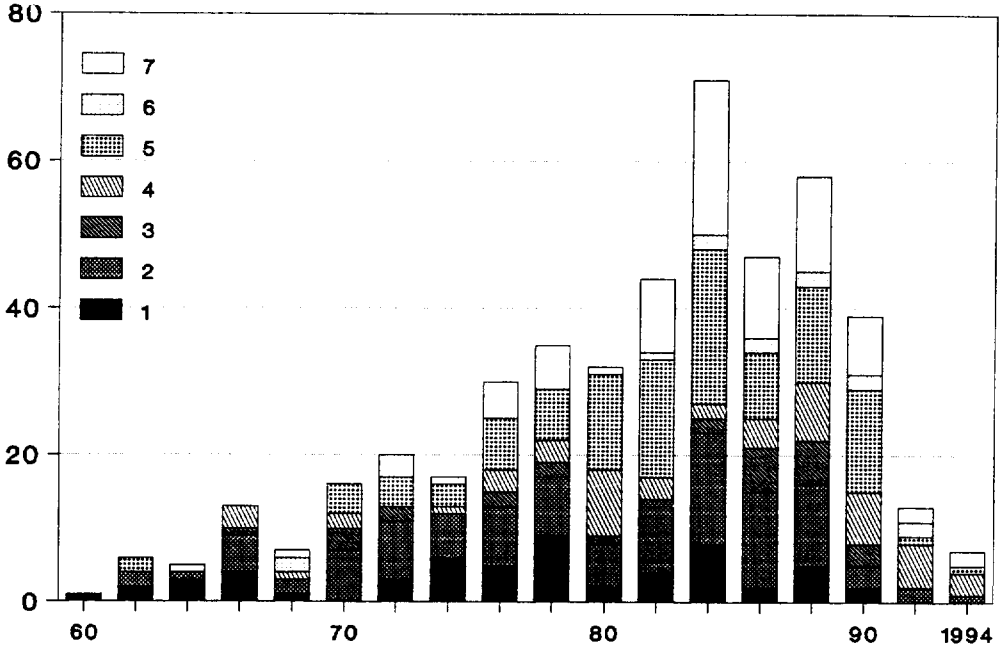


그림 3-1. 도시지리학연구의 영역별 동향

1-도시인구, 도시기능 2-도시화(도시성장), 도시권, 신도시(위성도시) 3-도시정책(도시환경) 4-도시경제(도시산업, 공업), 도시사회, 도시재개발 5-도시구조, 도시체계(중심지), CBD 6-도시입지, 도시형태 7-기타: 도시일반(도시문화, 토지이용), 도시사,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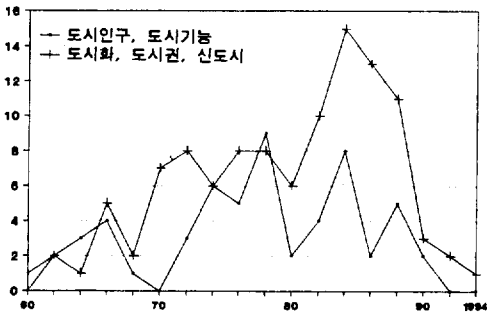


그림 3-2. 주요 영역별 연구동향(도시인구·도시화, 도시정책·도시경제·도시구조)

가 어느 곳인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총 449편의 논문 중 226편이 특정 도시 또는 都市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이들 가운데 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4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남권의 34%로 이들 두 권역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그림4-1). 수도권과 영남권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본격화한 것은 대체로 197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리학 관련학과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도시연구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점과 이들 권역이 도시밀집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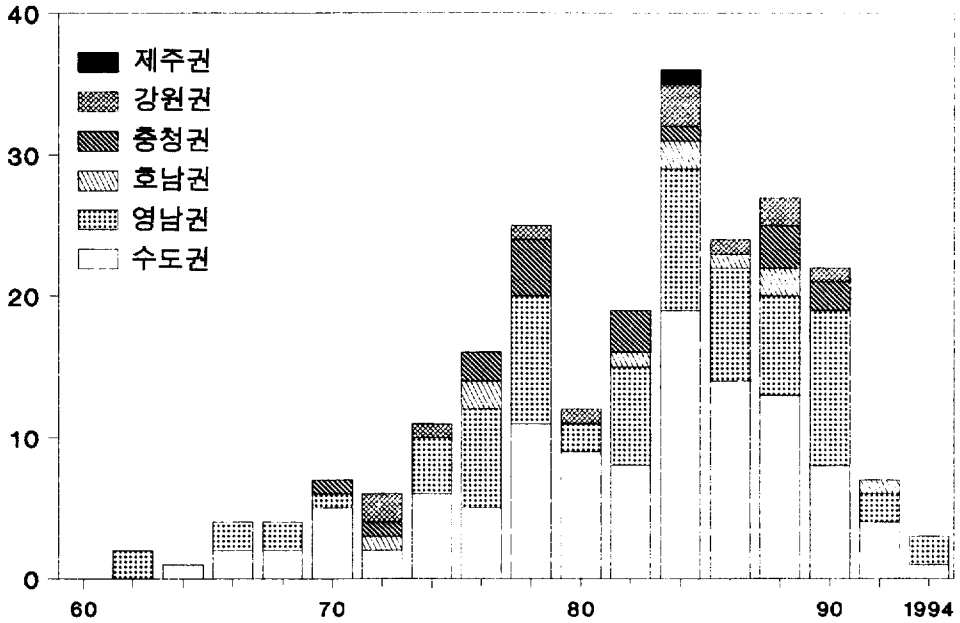


그림 4-1. 연구지역별 동향(圈域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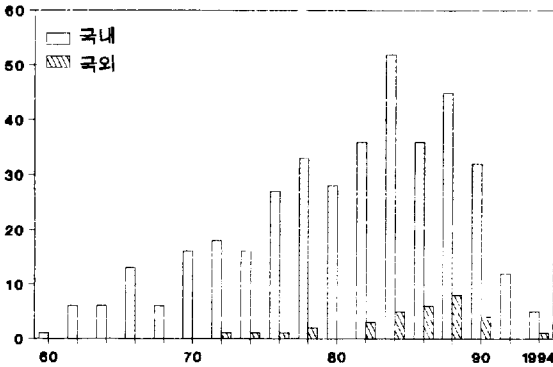


그림 4-2. 연구지역별 동향(國內外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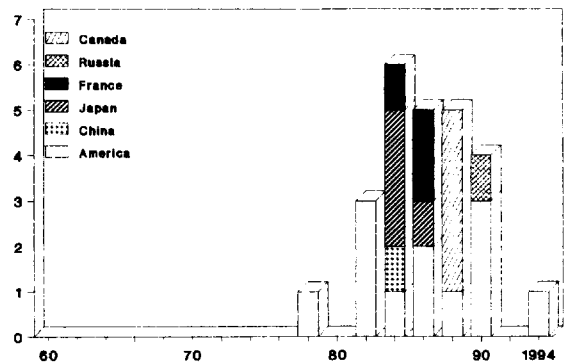


그림 4-3. 연구지역별 동향(國家別)

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충청권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꾸준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35년간 외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은 총 32편에 달하였다(그림 4-2). 이들 논문들은 1970년대에 들어와 간헐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양적 증가가 현저하였다. 그 이유는 1970년대부터 해외유학파의 귀국이 이어지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로는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학

자들에 의한 외국도시의 연구는 연구지역의 다양화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리학의 국제화·세계화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들 논문을 국가별로 집계해 보면 그림 4-3과 같다.

즉 미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본, 캐나다, 프랑스의 순이다. 미국도시가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한국인들의 해외유학과 교환교수의 행선지가 미국으로 편중되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5. 分析方法 및 學會誌別 動向

1) 분석방법별 동향

1960년을 전후하여 절정에 달했던 지리학의 계량혁명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우리나라 지리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무렵에 도시지리학은 계량적 분석방법의 도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량적 방법의 도입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지난 35년간 발표된 도시지리학 논문 중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30.5%를 차지하여 도시연구가 정량적 분석방법의 활용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의 기간은 도시지리학의 계량화가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계량기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테크닉은 회귀분석을 비롯하여 인자분석 및 주성분분석이었다(남영우, 1992). 도시지리학 분야에서는 특히 도시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인자분석과 군집분석, 네트워크 분석이 빈번하게 적용되었고, 도시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이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

나 數理模型을 적용한 도시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계량적 방법이 도시연구에 도입됨에 있어서 지리학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1970년대의 연구는 김 인(1974; 1976), 이기석(1875; 1980), 최기엽(1976) 등이 있으며, 1980년대의 연구는 성준용(1981; 1985), 주경식(1983), 남영우(1984), 권용우(1986), 이현욱(1988), 최원희(1988) 등이 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량적 방법에 의한 도시연구는 윤진숙·원학희(1990), 이옥희(1990), 전경숙(1992), 김학훈(1993), 최재현(1993) 등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량적 방법을 도시 분석에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도 많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오류라는 것은 분석기법을 잘못 선정하거나 계산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을 가리킨다. 특히 인자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회귀분석 등의 다변량분석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그와 같은 오류가 지적될 수 있다.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 새로운 통계 패키지의 개발은 도시지리학의 질적 향상을 기약할 수 있으나, 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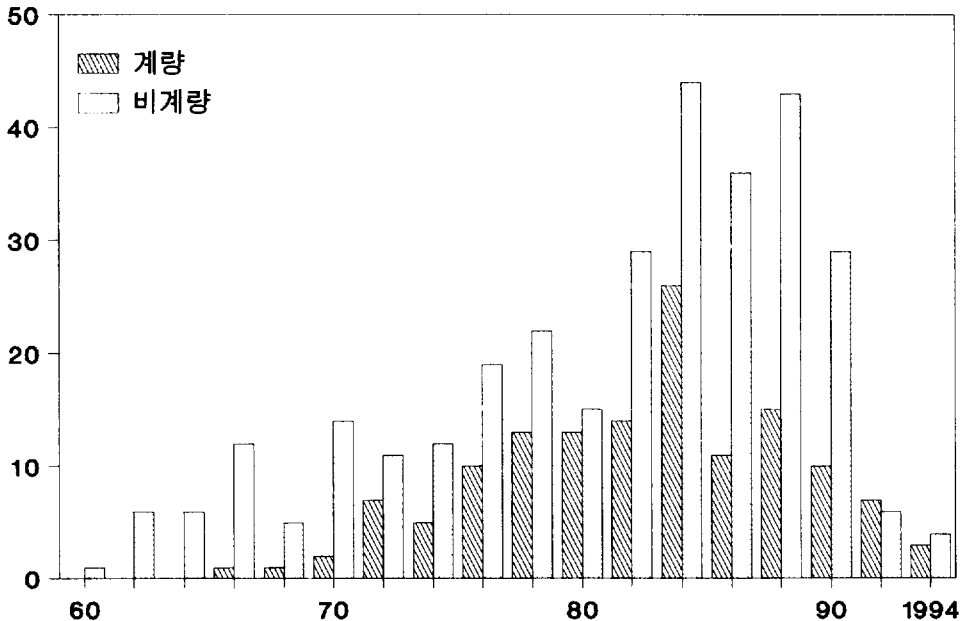


그림 5. 분석방법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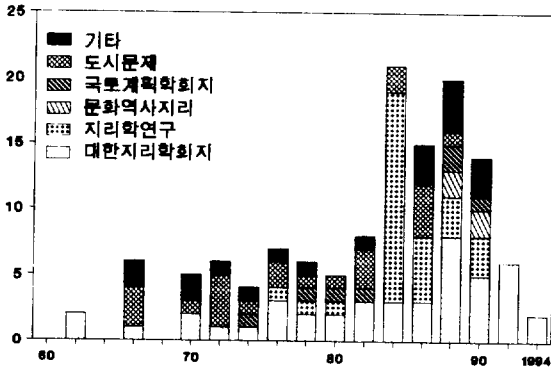


그림 6-1. 학회지별 논문게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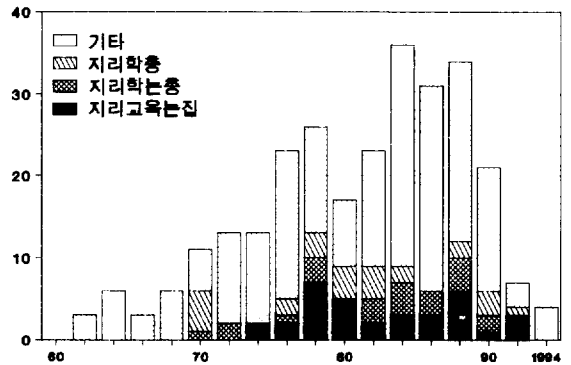


그림 6-2. 大學紀要別 논문게재 동향

퓨터의 오용 및 남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2) 학회지별 동향

현재 국내에는 도시지리학 관련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논문집이 학회 또는 각 대학의 학과 등에서 다양하게 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게재된 논문의 6할 이상은 각 대학의 紀要에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학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되는 문헌의 경우, 「대한지리학회지」가 전체의 34.6%를 차지하여 도시지리학의 비중이 대표적 학술지에서도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지리학연구」 23.6%, 「도시문제」 18.1%, 기타 14.9%, 「대한국토·도시계획」 5.5% 등의 순이다(그림 6-1). 도시지리학 관련논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특히 1985년에 급증한 이유는 한국지리교육학회지인 「지리학연구」가 1985년에 무려 1,173쪽에 달하는 이정면 박사의 회갑기념논문집이 발간된 것에 기인한다.⁵⁾ 또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월간지로 발행하는 「도시문제」에도 지리학자들의 연구물이 꾸준히 게재되었다.

한편, 각 대학에서 발간하고 있는 논문집의 경우, 각 대학의 紀要가 전체의 70.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지리교육논집」 12.1%,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와 「지리학총」 9.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와 「지리학논총」 8.2%의 순이다(그림 6-2). 상술한 학회지의 게재논문은 1980년대 중반에 급격한 양적 증가를 보였으나, 대학紀要의 경우는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은 도시

연구물이 투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지리학 관련논문의 투고수요를 학회지가 흡수하지 못하거나, 도시지리학자들이 투고가 용이한 소속대학의 紀要를 선호하고 있는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6. 結 論

본 연구는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을 회고하기 위해 1960-1994년의 35년간 출간된 논문 449편과 단행본 15권을 연구영역별·연구지역별 분석방법 및 학회지별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한국의 도시지리학은 해방후에 성립되었으나 대한지리학회지가 창간된 1960년대에 들어서 정립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는 전환기에 돌입하였다. 해외유학파의 귀국과 도시지리학의 저변확대는 1980년대를 절정기에 올려놓게 하여 1990년대의 성숙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동향은 우리나라 도시지리학의 발달이 도시화율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도시지리학의 동향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초기에 해당하는 성립기와 정립기에는 쟁점이 될 만한 영역이 별로 없었으나 1970년대부터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지리학계에서 꾸준히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도시연구의 주제는 도시화, 도시구조, 도시체계, 도시경제 등의 영역임이 판명되었다.

3. 도시지리학의 동향을 연구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5년간 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남권의 도시였음이 밝혀졌다. 외국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 캐나다, 프랑스 순이었다.

4. 도시지리학의 동향을 분석방법 및 학회지별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35년간 발표된 도시지리학 논문 중 계량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전체의 30.5%를 차지하여 도시연구가 정량적 방법의 활용에 적극적이었으며, 회귀분석을 비롯하여 인자분석 및 주성분분석과 같은 계량기법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발표된 도시지리학 논문의 6할 이상은 각 대학의 紀要에 발표되었고, 학술지 중에서는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도시지리학의 장래를 전망해보면,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시의 재구조화가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21세기에는 도시구조와 도시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화를 주도하던 산업은 공업으로부터 서비스업 및 정보산업으로 대체되어 情報化都市로서의 도시구조 및 도시체계와 관련한 都市再構造化(urban restructuring) 연구가 초미의 관심분야로 한국 도시지리학자의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註

- 1) 우리나라 도시지리학분야의 연구동향을 고찰한 기존의 연구로는 강대현(1976, pp.20-27)과 박영한(1983, pp.71-85)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의 연구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상기한 연구를 참조하였다.
- 2) 도시지리학자의 人名과 연구물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였다.
- 3) 지리학 내지 도시지리학관련 연구물이 자주 게재되는 紀要는 경북대학교 논문집, 경북대학교 사범대의 교육연구지, 부산여대 논문집 등이다.
- 4)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의 도시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 5) 이 논문집에 게재된 한국인의 도시연구만도 무려

14편에 달한다.

文 獻

강대현, 1975, 도시지리학, 교학사.
 강대현, 1976, “도시·촌락지리학: 대한지리학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지리학, 13, 20-27.
 권용우, 1986, “서울주변지역의 교외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2호, 1-276.
 김 인(편), 1984, 도시지리학: 이론과 실제, 법문사.
 김 인, 1974, “밀도분석에 의한 도시인구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수도 서울을 사례로,” 지리학, 10, 33-42.
 김 인, 1976, “국토의 도시화와 도시체계 공간 구조의 변천: 1976-2001,” 지리학, 14, 41-57.
 김 인, 1991, 도시지리학, 법문사.
 김 인·권용우, 1988, 수도권지역연구, 서울대출판부.
 김학훈, 1993, “도시산업구조와 다변화: 도시경제간의 수렴 성향,” 대한지리학회지, 영문판 1, 28(4), 356-378.
 남영우, 1984, “서울에 있어서 거리파라미터의 분포패턴: 중력모델과 엔트로피 최대화 모델의 비교,” 지리학연구, 9, 363-376.
 남영우, 1985, 도시구조론, 법문사.
 남영우, 1988, 도시와 국토, 법문사.
 박영한, 1983, “한국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과 도시이해의 방향,” 지리학논총, 10, 71-85.
 박태화, 1988, 한국의 위성도시, 형설출판사.
 성준용, 1981, “이노베이션의 공간적 확산연구의 동향-도시시스템에 있어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 지리학총, 9, 45-56.
 성준용, 1985, “한국 제도시간에 있어서 슈퍼마켓의 확산,” 지리학연구, 10, 441-458.
 성준용, 1990, 한국의 도시시스템, 교학연구사.
 윤진숙·원학희, 1990, “부산시에 있어서 근대적 도시지역구조의 형성,” 지리학총, 18, 33-74.
 이기석(편), 1980,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보

- 진재.
- 이기석, 1975, "서울 중심지역의 1960년 인구 및 주택 특색의 분포에 관한 다변수분석," *지리학과 지리교육*, 4, 1-26.
- 이기석, 1980, "대도시 거주지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보진재, 128-172.
- 이기석, 1981, *울산의 성장과정과 지역적 특성*, 울산상공회의소.
- 이숙임, 1961, "서울 도시의 실태: 특히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녹우회보*, 3, 1-38.
- 이영택, 1972, *취락지리*, 대한교육연합회.
- 이육희, 1990, "한국의 도시체계와 여객버스유동에 관한 연구," *이화지리총서*, 4, 1-172.
- 이 찬, 1976, "회장기조연설," *지리학*, 13, 3-6.
- 이한순, 1960, "남한 도시의 기능적 고찰: 산업인구구성을 중심으로," *高乘幹박사송수기념 논총*, 607-620.
- 이한순, 1963, "남한 도시인구의 팽창과 실태," *지리학*, 1, 67-82.
- 이현욱, 1988, "광주시 주택지 지가의 분포와 그 형성요인 분석," *지리학*, 37, 69-86.
- 전경숙, 1992, "광주시 유아교육기관의 적정입지-배분에 관한 연구," *지리학*, 27(3), 208-231.
- 주경식, 1983,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체계: 1960-1980(II)," *국토계획*, 18(2), 134-156.
- 최기엽, 1976, "한국도시의 규모분석," *지리학연구*, 1(2), 27-44.
- 최병두, 1993, *도시·지역·환경*, 한울.
- 최병두·한지연, 1989,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 한울.
- 최영준, 1989, "조선시대 한양의 교지역 연구," *문화역사지리*, 1, 3-22.
- 최원희, 1988, "대전시의 도시내부 인구이동의 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 *국토계획*, 23(2), 55-91.
- 최재헌, 1993, "한국 금융의 공간적 특색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영문판 1, 28(4), 321-355.
- 추성구, 1959, *광주의 도시지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주성, 1993, "도매업 판매활동에 의한 한국의 도시유형 변화," *지리학*, 28(3), 200-212.
- 홍경희, 1962, "남한의 도시화-일정시대," *경북대학교 논문집*, 6, 287-295.
- 홍경희, 1963, "해방후 남한의 도시화," *경북대학교 논문집*, 7, 353-379.
- 홍경희, 1981, *도시지리학*, 법문사.
- 홍경희, 1987, *도시·촌락조사법*, 법문사.
- Jones, R., 1973, Trends in urban geography in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1945-1972: a quantitative review, *Trends in Urban Geography: Reports on Research in Major Language Areas*, Schöller, P.(ed.), Schöningh, 9-18.
- Kiuchi, S. and Masai, Y., 1973, Recent trends of urban geography in Japanese language, *Trends in Urban Geography: Reports on Research in Major Language Areas*, Schöller, P.(ed.), Schöningh, 65-72.
- Park, S. O., 1994, Industrial restructur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major triggers and consequenc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 527-541.
- Schöller, P., 1973, Introduction to the reports on trends in Urban Geography, *Trends in Urban Geography: Reports on Research in Major Language Areas*, Schöningh, Bochum.

Prospects and Retrospects to the Urban Geography Studies in Korea

Young-Woo Nam*

Summary

In celebrating a half century history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this paper is concerned about research trends of the urban geography in Korea by reviewing of 449 papers and 15 books mainly in an urban geography field.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velopment of the urban geography in Korea has several stages: ① The launching stage just after 1945; ② the premature stage in the 1960s; ③ the taking-off stage in the 1970s; ④ the maturing stage in the 1980s; and ⑤ culminating stage in the as of 1990s.

(2) The earlier studies had a few limited research themes without major debating issues. In the 1970s, various research themes had been introduced in the urban geography. More diverse themes have been studied in urban geography after the 1980s. The major themes in the urban geography included urbanization, urban structure, urban system, urban economic

structure and so on.

(3) The most frequent research area for the Korean urban geographers has b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llowed by Kyongsang-Province region. Outside Korea, the most frequent research areas are the American cities followed by the cities of Japan, Canada, and France.

(4) The urban geography in Korea has played a major role in introducing the quantitative methods and techniques into geography. For example, over 30.5% out of papers in urban geography has taken the quantitative techniques in the past 35 years during the 1960-1994 period. The papers inside urban geography have counted more than 60 percent from research papers in major university journals and took 34.6 percent from the papers of the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Key Words: research trends of urban geography, urban studies, 35 years history of the urban geography, urban restructuring.

* Professor, Korea University

권용우(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남영우교수께서 방대한 양의 도시지리학 관련 연구물을 정리하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립니다. 본 논문은 내용전개 측면에서 세가지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문헌연구의 방법이다. 문헌연구는 연도별 연구물의 양, 해방후 10년 단위의 연구시기별 연구주제, 17개 연구영역별 연구동향, 연구도시지역별 연구동향, 계량 및 비계량에 의한 연구분석방법, 학술지와 대학논문집 등 게재지별 연구동향 등으로 고찰하였다. 둘째는 분석대상논문의 수이다. 본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총 449편이다. 이중 226편이 특정도시 또는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2편이 외국도시지역을 연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는 표현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 방대한 양의 도시지리학 관련 연구물을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여 간명하게 정리함으로써 지난 3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도시지리학 관련논문의 총괄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연구주제별 연구자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연구동향을 다루는 논문에서는 연구주제별로 각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엄정하게 검토하면서 그 내용의 시시비비를 평가하여 학문적 기여도를 가늠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과정을 거쳐야 현재의 우리나라 도시지리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분야는 더욱 열심히 연구하여 한국의 도시지리학의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연구주제를 17개영역으로 나열한 점이다. 도시지리학의 연구주제는 도시체계론, 도시구조론, 도시정책론 등의 3가지 관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본연구에서 제시한 17개 영역에 입각할 경우, 하나의 논문에서 도시사, 도시인구, 도시기능 등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었을 때 그 논문의 분류가 모호해 질 수 있다. 셋째로 도시지리학의 연구물을 계량분석방법에 사용했느냐의 여부에 의해 분류한 점이다. 계량분석과 논리실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실증주의 연구방법은 이미 1960년대 중반이후 행태주의와 1970년이후 정치경제학 및 인간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해 비판을 받아 현재는 도시지리학의 여러 연구패러다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넷째는 도시지리학의 연구물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줄어들었다고 지적한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본연구에서 도시지리학을 전통적인 관점으로 정의하고 분류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대두된 여러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물을 제외시킨데서 연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의 도시지리학은 실증주의나 행태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 못지않게 구조주의 내지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매우 활발하다. 근래에 이르러 인문지리학 또

는 자연지리학의 어느 분야이건 간에 도시를 지리학적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물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정치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도시를 연구한 논문들은 1990년대 이후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섯째는 연구시기의 명명에 관한 점이다. 본연구에서는 도시지리학의 연구시기를 성립기(해방후), 정립기(1960년대), 전환기(1970년대), 절정기(1980년대), 성숙기(1990년대) 등으로 구분하고 각시기에 있어서의 연구주제를 열거하고 있다. 10년 단위의 연구시기를 나누는 것은 무리가 없겠으나, 각 시기가 반드시 성립기, 정립기, 전환기, 절정기, 성숙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시지리학의 각 연구주제에 따라 어떤 분야는 1970년대에 성숙기를 겪었을 경우도 있고, 또다른 분야는 1990년대에 절정기를 맞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문헌수(數)에 관한 점이다. 본연구에서는 도시지리학의 연구물을 449편이나 검토했으면서 정작 참고문헌에는 41편만을 등재하고 있어 너무 적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리학 연구물은 향후 도시지리학을 전공하려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김원경(부산여대 지리학과)

필자는 남교수님과 성교수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외국의 都市에 대한 接近方法이나 分析技法을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나라의 도시에 적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진다. 예를들면, 計量地理學을 두고 1960년대의 美國에서는 論爭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論爭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서양사람들이 그들의 도시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指標, 指數, model들을 우리는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도시라는 인간현상의 범주 내에서는 서양의 도시와 우리나라 도시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고 생

각한다. 그렇다고 하면, 서양의 model을 우리의 도시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三角形의面積을 구하는데 圓의 면적을 구하는 公式를 이용한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남영우 교수도 지적했듯이, 특히 계량적 방법으로 도시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계량적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演繹의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용하는 因子나 要素 이외의 指標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simulation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서양의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나라 도시에 대한 적용 여부는 충분한 simulation 없이 행해진 것이 사실이다. 도시에 대한 접근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 도시지리학자들의 思考에 관한 문제로 축약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리학자들의 思考에 약간의 경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외국에서 어떤 이론이나 방법론이 새로 생겨나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 이론만 받아들였지, 그 이론이 나오게 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에서 Max Weber를 흔히 인용하고 있고 그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그의 방법론에 의해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그런데 Weber의 이론이 나오기까지, 그의 도시에 관한 연구의 경우, 수많은 동서고금의 자료를 섭렵하고 숙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Schaefer의 이론에는 동의하고, 그의 논문내용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 역사적으로 누적되어온 미국의 경험적 연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사실이다.

'Thuenen의 孤立國理論이 1826년에 나왔지만 구체적인 발견은 1933년에 Waibel 의해서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20년대의 Burgess는 Thuenen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同心圓地帶說을 개발하고 있다. 먼저 Thuene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Christaller의 中心地理論이 1932년에 나왔고, 구체적으로 1950년대에 와서야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0년대 초기부터 Ullman과 Harris는 Christaller를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1948년에 多核心理論을 발표한다. 그 이론만 받아들였지 그 이론이 나오기 까지의 배경과 과정에는 등한시 했다는 것이다. 물론 1950년에 Hartman이 CBD를 연구할 때 Christaller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한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 Sweden의 소위 Lund학파에서 Haegerstrand의 model을 보고 '지리학자가 만들어 낸 최초의 지리학 model'이라고 자화자찬 겸 칭찬을 보낸다.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Christaller가 중심지이론을 발표할 당시는, 그는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나찌' 정권의 압박을 받을 때 였다. 결국, Christaller를 제일 먼저 도입하여 번역하고 중요성을 인식한 나라가 독일이 아닌 Sweden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예들은 어떤 이론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받아들여 우리나라 도시에 적용한다면, 정확한 결론도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둘째, Something New!, 어떤 새로운 것, 새로운 연구를 너무 강조한다. 이것은 특히 대학교수들이 대학원생을 지도할 때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도 예를들어 보면, 대학원생이 "교수님, 「부산시 주택지역의 분포」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구태의연하고 묵은 연구를 하지마! 좀 더 새로운 것을 해야 학위는 문으로서 가치있는게 아닌가! 요인생태분석에 의한 거주지 선택이 어때!"라고 답할 것이다. 이때도 'Something New'를 강조한다. 부산이 개항된지 100여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언제, 누가 부산의 주택지역분포를 연구했기에 낡은 연구라고 이야기 할 것인가? 요는, 언제, 누가 연구했다고 낡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교수님, 이번

chapter는 분포도를 작성하여 공간 pattern을 보려고 합니다”라고 대학원생이 이야기 했다고 하면, “그런 분석방법은 벌써 버린지 오래야! 새로운 기법을, 좀 더 새로운 model을 적용해봐”라고 답할 것이다. 남영우교수의 분석에서 보면, 지난 35년간 도시지리학 논문중 30.5%가 계량적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1990~1993년까지 A.A.A.G.의 인문지리학 논문내용을 보면, 10% 정도가 계량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혹은 전통적인 방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는 학자들이 새로이 생겨났다는 의미이다. 또한 A.A.A.G.의 많은 논문들의 연구주제나 방법이 지역만 다를 뿐 30~40년전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참고로 이야기 했을 뿐 미국의 것을 따르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셋째, 일반화 도출을 너무 성급하게 서둘고 있는感が 없지 않다. 이것의 일부는 둘째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 지리학에서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일 것이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조차 정확하게 모르면서, 왜, 어떻게 있느냐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nonsense일 것이다. 사실, 일반론을 추출하는 흥미 없이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그 재미 없이는 연구하기가 참으로 무미건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급한 일반론을 유도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도시에 대한 경험적이고 선형적인 연구가 누적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너무 성급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게을러서도 안될 것이다. 앞으로 50년후에 대한 지리학회 창립 10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도시 model, 도시공간원리, 나아가서 도시공간법칙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기초연구를 행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도시지리학자들에게 부여된 과제이며 또한 임무라고 생

각한다.

성준용(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韓國에 있어서 地理學의 研究는 他學問에 比해서 늦게 出發했다. 그것은 1946年の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와 1947年の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의 創設과 더불어 始作했다. 그 後, 1958~60년에 4個의 大學에 地理科가 創設되고 地理學 教授의 數는 1960년에 15名 程度였으나, 1970년에는 50名(李燦, 1976), 1975년에는 70名, 1986년에는 150名(1987, 大韓地理學會會員名簿) 程度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大學에 있어서 地理學研究의 歷史가 짧고, 研究者도 적었기 때문에 研究論文의 축적이 또한 적다. 地理學關係의 研究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1960年代 初頭이다. 1960年代에는 各大學의 論文集과 大韓地理學會의 會誌인 「地理學」(1963年 創刊)의 創刊에 의해 地理學의 研究 成果가 發表 되었다.

本人이 調查發表한 資料(成, 1987)에 의하면, 1975년까지 發表된 都市地理學關係의 論文은 約 50篇 정도이고, 그중에서 都市圈, 都市化에 관한 研究가 가장 많고, 이어서 都市機能, 都市의 內部構造의 順이다.

1960年代 前半에는 都市의 分布, 都市化, 都市機能의 研究를 主軸으로 한 都市地理學의 研究가 始作된 時期이다. 1960年代 後半에는 都市의 形態, 都市化, 都市機能의 研究論文이 各各 비슷한 數로 發表되고, 都市의 內部構造, 中心地研究가 始作된 時期이나 量的으로는 그다지 增加했다고 볼 수 없다. 都市化·都市機能의 研究는 1960年代를 代表하는 分野로, 그 中에서 都市化의 研究는 全國的인 規模로 이루어진 研究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1970年代 前半은 中心地研究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時期이다.

1975년부터는 主로 美·日·Europe 等の 外國留學者를 主軸으로 計量化가 이루어진 시기로서 各 分野別研究에는 그와 같은 傾向을 反映한 것이 많다. 우선, 都市化의 研究는 micro한 水

準에서 實證的 研究과 더불어 計量的 側面으로부터의 研究가 이루어진 것, 都市內部的 機能地域 研究가 多變量分析에 의한 都市 因子生態研究로 변한 것, 中心地研究에서 中心性的 階層構造, 都市圈 等の 研究가 因子分析 等を 이용해 이루어진 것 등이 있다.

1975年 以後에는 中心地研究로부터 獨立해 都市 시스템 研究를 指向한 研究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特徵이다. 그것은, 都市시스템의 概念的 整理가 늦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都市시스템을 意識한 것이 아니고, 다른 研究目的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都市規模分布와 都市間의 連結關係에 關한 研究를 포함한 都市시스템의 研究가 많은 것이 그 例이다.

1980年을 경계로 해, 都市地理學의 研究는 오히려 停滯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 理由는 先進國의 都市地理學에서 새로운 理論의 開發을 그다지 볼 수 없다는 점과 行動地理學, 時間地理學 等の 새로운 理論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아직 이것들의 수용·전파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南營佑 教授는 1980年代를 都市圈, 都市化, 都市體系, 都市經濟를 주축으로 한 研究의 絶頂期, 1990年代를 都市經濟를 주축으로 한 研究의 時期이며, 研究의 量的 減少로 인하여 都市地理學의 熱氣가 急激히 냉각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都市地理學의 水準은 成熟期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와 같은 都市地理學의 絶頂期·成熟期에 대한 定義에는 신중하고 엄밀한 檢討가 이루어진 후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84년에는 70篇 以上の 論文이, 88년에는 60篇에 가까운 論文이 發表되어 量的으로 先進國 水準에 도달했다고 하고 있다. 都市地理學者의 數가 30名 안팎으로 定해져 있는 現實에서, 적어도 1人的 教授가 一年에 2~3篇의 論文을 發表했어야만 되는 업적이다.

著者別로 研究의 歷史인 研究業績을 소개하고, 그것이 都市地理學에 어느 程度 關係되어 있는가를 客觀的으로 엄선한 後에 내렸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最近, 世界的으로 地理學研究의 흐름에 대한 논의 가운데 注目되는 것은, 都市地理學의 停滯에 關한 것들이다. 韓國의 都市地理學 또한 例外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50年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外國의 理論을 소개하고 適用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資料의 制約과 都市地理學 그 自體에 對한 哲學의 不足, 理論의 貧困 등이 原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外國理論의 採用에 있어서도 韓國의 實情에 맞는 理論의 開發이 없는 限, 韓國의 都市地理學은 外國에 있어서의 研究의 모방에 머물고 말 것이다. 都市地理學研究者의 增加와 더불어 外國의 새로운 理論을 빨리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韓國에 適合한 理論의 開發·構築을 통하여 都市地理學의 基盤을 強固히 할 時期에 와 있다. 外國의 都市地理學과 競爭에 맞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韓國地理學者가 外國에서 發表한 論文도 상당한 부분이 축적되어 있다. 그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本人의 토론내용도 87년에 일본학회에 투고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것들도 國內의 都市地理學이라는 土壤을 비옥하게 한 밑거름이었다.

文 獻

- 大韓地理學會, 1987, "大韓地理學會會員名簿" 新羅出版社.
- 成俊鏞, 1987, "韓國における都市地理學の發達", 地理科學, 42-3, 133-143.
- 李燦, 1976, "會長基調演說—大韓地理學會 創立 30週年 심포지움" 地理學, 13, 3-6.